

《字典釋要》俗字考

나도원*

◁ 목 차 ▷

- I. 서론
 - II. 某俗字
 - 1. 《강희자전》의 속자와 같은 경우
 - 2. 《강희자전》의 속자와 다른 경우
 - 1) 《강희자전》의 이체자를 속자로 설명한 경우
 - 2) 《강희자전》에 속자의 언급이 없거나 다른 해석을 한 경우
 - 3) 《강희자전》에 없는 글자이거나 속자의 자형이 다른 경우
 - III. 결론
-

I. 서론

《字典釋要》는 한국의 한의학자이자 국어학자였던 池錫永 선생(1855~1935)이 편찬한 자전이다. 池錫永은 한국에 種痘를 실시하여 수많은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개화시기 국문의 정리와 보급을 위해 《字典釋要》를 편찬하였다. 《字典釋要》는 池錫永이 1906년 저술을 완성한 뒤 1909년 7월 상해의 周月記書局에서 발행된 이래 41년간 총21회 발간되었다.¹⁾

《자전석요》에 수록된 표제자 수에 대해 초판부터 14판까지는 '16,306자'이고, 15판부터 1950년판은 '16,310자'임을 새로 밝혔다. 7판부터 檢字를 사입했고, 15판부터 권말에 插圖를 첨부하여 독특한 체재를 갖추었다.²⁾ 즉, 판본별로 그 표제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2-A00040).

1) 하강진, 《자전석요》의 편찬과정과 판본별 체재 변화, 《한국문학논총》 제56집, 688쪽, 2010.

자의 수량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판본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1917년 滙東書館에서 출판된 열두 번째 판본이다. ‘字典釋要目錄’의 끝부분에 총 16,298자라고 수록자의 양을 밝히고 있으나, 필자가 일일이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리한 결과 실제로는 16,307³⁾자로 목록에 나와 있는 글자보다 9글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자전석요》가 출간되기 이전의 한국 자전들은 대부분 중국의 자전을 다시 발간한 것이며, 한글로 뜻과 음을 해석해 놓은 《訓蒙字會》, 《類合》, 《千字文》 등은 단순한 새김식 한글풀이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訓蒙字會》가 3,360자이고 《新增類合》이 3,000자 정도로 수록된 글자의 양이 단순히 아동들의 훈몽을 위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그 수준이 미흡하였다. 1796년에 간행된 《全韻玉篇》은 수록자가 10,840자에 이르렀지만 한글음을 제외하면 역시 한자의 주석만 있었으며, 1856년 간행된 《字類註釋》은 《전운옥편》과 비슷한 10,800자였고 한글음과 풀이를 함께 달아놓음으로써 사용에 편리함을 추구하였으나, 오히려 체재상에 있어서는 부수별 분류가 아닌 “天文類”, “水火類”, “山川類” 등으로 나눔으로써 오히려 실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국문보급을 위한 자전의 편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字典釋要》는 약 15년에 걸쳐 저술되었으며 총 16,310자가 수록되어 있다. 《자전석요》는 하나의 한자에 대해 한글한자음, 한자주석, 한글풀이, 소속운, 同字와 通字관계, 俗字 등의 항목에 대해 자세한 풀이를 실고 있어 한자의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자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식영이 서문에 밝힌 것처럼 진실로 “부녀자나 어린 아이, 나뭇꾼과 목동이라 할지라도 며칠만 노력하면 국문을 깨칠 수 있으니 문명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바가 없다.”고 한 바와 같은 것이다.⁴⁾

《자전석요》에서 俗字를 설명하는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강희자전》에 나오는 글자는 “某俗字”의 형식으로 주석하고, 《康熙字典》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

2) 하강진, 《〈자전석요〉의 편찬과정과 판본별 체재 변화》, 《한국문학논총》 제56집, 664쪽, 2010.

3) 원래 필자의 출처 〈字典釋要全字初探〉에서 16,304자라고 밝혔으나, 이후 여러 번의 검토를 통해 3글자가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혼동을 주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

4) 雖婦孺僦牧費了幾日之工, 解得國文, 則不待師教能曉. 此萬餘字字義誠如是也. 其於文明進步不無裨補. 〈序文〉.

널리 통용되던 한국, 중국, 일본에서 통용되던 속자에 대해서는 네모칸 안에 鮮, 中, 日을 표기하는 형식으로 속자나 속의를 설명하였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某俗字”의 형식으로 나타난 글자는 모두 159개, “某俗字非”의 형식으로 나타난 글자는 모두 25개이다. 159개의 속자 중 25개는 《강희자전》의 내용과 다르다.⁵⁾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우선 “某俗字” 형식의 속자를 살펴보고 고유속자에 대해서는 다른 장을 이용하고자 한다.

II. 某俗字

池錫永은 凡例에서 《字典釋要》의 속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속자 중에서 자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래 획수의 끝에 기록하고 네모칸으로 日·鮮·華라고 주하였고, 음은 해성법에 따라 정하였다. 예를 들면 畚·係·鉶·辻·鰯 등의 종류이다. 글자 중에서 자전에 실려 있지만 원래의 풀이 외에 속의가 관행되고 있는 것은 끝에 네모칸으로 주하였다. 예를 들면 頃·倭·俵의 종류들이다. 俗字之不載於字典者, 書于原畫之末而匡註日·鮮·華, 音則依諧聲法而定之. 如畚·係·鉶·辻·鰯之類. 字載於字典而原註外別有俗義之慣行者, 尾行匡註. 如頃·倭·俵之類.”

여기서의 字典은 《康熙字典》을 말한다. 이 凡例에 의하면 《康熙字典》에 나오지 않는 속자는 동일획수의 글자들 중 맨 끝에 나열하고 그 속자가 한국, 중국, 일본 중 어느 나라의 글자인지를 네모칸으로 표기하였으며, 강희자전에 나오는 글자 중 속의가 각 나라에만 특별히 나타나는 경우는 해당 글자의 해석에서 속의가 나타나는 부분에 귀속 국가를 밝히고 그 의미를 풀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지식영은 또한 《강희자전》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각 나라 고유의 속자나 혹은 고유의 속의를 밝힌 글자를 따로 표기하였는데 한국의 고유속자 26개, 고유 속의를 밝힌 글자가 36개이며, 중국의 고유속자 49개, 고유 속의 54개, 일본의 고유속자는 28개, 고유 속의는 13개이다.

1. 《강희자전》의 속자와 같은 경우

위의 범례에 의하면 《강희자전》에 있는 글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데 이는 본문에서 “某俗字”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자전석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강희자전》 중에서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글자를 뽑아 한글 음과 뜻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강희자전》에 나온 속자는 대부분 《강희자전》의 해석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1	俞	俞俗字	35	鬱	鬱俗字	69	窟	窟俗字	103	覓	覓俗字
2	俚	男俗字	36	涓	涓俗字	70	竊	竊俗字	104	覽	覽俗字
3	決	決俗字	37	潛	潛俗字	71	豎	豎俗字	105	讐	辯俗字
4	焌	叔俗字	38	灑	灑俗字	72	策	策俗字	106	象	象俗字
5	収	收俗字	39	靈	靈俗字	73	統	統俗字	107	賔	賓俗字
6	么	么俗字	40	灶	竈俗字	74	織	織俗字	108	跋	跋俗字
7	吊	俗弔字	41	炉	爐俗字	75	群	羣俗字	109	躄	躄俗字
8	嘗	嘗俗字	42	焰	焰俗字	76	羹	羹俗字	110	軀	軀俗字
9	噐	器俗字	43	熙	熙俗字	77	耻	恥俗字	111	軋	軋俗字
10	回	因俗字	44	熨	熨俗字	78	聘	聘俗字	112	軟	軟俗字
11	国	國俗字	45	熨	變俗字	79	聿	聿俗字	113	輩	輩俗字
12	坵	丘俗字	46	互	互俗字	80	聰	聰俗字	114	辮	辮俗字
13	塩	鹽俗字	47	猪	豬俗字	81	畫	畫俗字	115	遞	遞俗字
14	声	聲俗字	48	猫	貓俗字	82	脆	脆俗字	116	遊	遊俗字
15	嫩	嫵俗字	49	猷	猷俗字	83	腮	頰俗字	117	酌	酌俗字
16	密	密俗字	50	猿	猿俗字	84	膝	膝俗字	118	醜	醜俗字
17	柿	柿俗字	51	璫	璫俗字	85	臬	臬俗字	119	鎮	鎮俗字
18	尠	尠俗字	52	甦	甦俗字	86	臺	臺俗字	120	陀	陀俗字
19	屏	屏俗字	53	留	留俗字	87	舖	舖俗字	121	頤	頤俗字
20	岩	岳俗字	54	痴	癡俗字	88	館	館俗字	122	飴	飴俗字
21	床	牀俗字	55	瘵	瘵俗字	89	艷	艷俗字	123	餅	俗餅字
22	慙	慙俗字	56	瘤	瘤俗字	90	苜	蓐俗字	124	駟	駟俗字
23	戛	戛俗字	57	鼓	鼓俗字	91	芻	芻俗字	125	驗	驗俗字
24	扞	扞俗字	58	鼓	鼓俗字	92	葦	葦俗字	126	鬪	鬪俗字
25	撐	撐俗字	59	盃	杯俗字	93	薙	薙俗字	127	鷗	鷗俗字
26	斷	斷俗字	60	蓋	蓋俗字	94	處	處俗字	128	麤	麤俗字
27	矚	矚俗字	61	畫	畫俗字	95	虵	蛇俗字	129	數	數俗字
28	膳	膳俗字	62	看	看俗字	96	蠶	蠶俗字	130	麵	麵俗字
29	柴	漆俗字	63	真	真俗字	97	蠍	蠍俗字	131	鼎	鼎俗字
30	萊	桑俗字	64	矚	矚俗字	98	蠶	繭俗字	132	戲	戲俗字
31	栢	柏俗字	65	碍	礙俗字	99	蚶	蚶俗字	133	衛	衛俗字
32	夢	夢俗字	66	稟	稟俗字	100	褒	褒俗字	134	衛	衛俗字

33	楸	椒俗字	67	稱	稱俗字	101	霸	霸俗字			
34	榴	榴俗字	68	窓	窓俗字	102	羈	羈俗字			

2. 《강희사전》의 속자와 다른 경우

“某俗字”의 형식으로 속자를 설명한 글자 중 일부는 《강희사전》의 설명과 다른 경우도 보이는데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강희사전》의 이체자를 속자로 설명한 경우

《사전석요》에 “某俗字”라고 설명하였지만 《강희사전》은 “或作”, “亦作”, “別作”, “古文”, “與同”, “譌字”의 형식으로 이체자로 설명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NO	표제자	《사전석요》	《강희사전》해석의 부분 발췌
1	冀	冀俗字	《韻會》冀或作冀。
2	嘜	嘜俗字	別作嘜嘜。
3	坨	陀俗字	《正字通》陀字之譌。
4	寃	冤俗字	《正韻》亦作寃
5	晒	曬俗字	《字彙補》與曬同。
6	畝	畝俗字	古文
7	疔	疔俗字	疔: 俗作疹, 別作癩疔。
8	糞	糞俗字	糞: 或作糞。
9	迺	邈俗字	同邈, 俗省。
10	骈	骈俗字	骈: 《正字通》骈字之譌。骈: 《玉篇》同骈。
11	柁	柁俗字	又同柁
12	泐	泐俗字	或作泐, 泐。
13	驪	羸俗字	《正韻》: 同羸

그렇다면 속자와 이체자를 구분 짓는 경계란 무엇일까? 우선 속자와 이체자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속자와 이체자는 正字에 대칭되어 사용되는 개념으로 正자란 正문, 正體라고도 한다. 한자 중에서 필획 구조가 자서의 규범에 부합하는 표준 자형을 正字라고 말하며 別字, 譌字, 俗字, 異體字, 異文 등과 구별된다. 이에 반해 속자는 正자에 상대되는 글자로 옛날 민간에서 유행하던 통속문자를 말한다. 대부분 字書의 서법과 다르고 필획이 비교적 적은 簡化

字이며, 지배층에 중시받지 못한 글자이다.⁶⁾

이체자 역시 정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자의 글자체와 다른 글자체를 말한다는 의미에서는 속자 역시 이체자의 범주에 속한다. 이체자 속에는 或體, 異文, 重文, 譌字, 別字 등이 있는데 張涌泉은 속자와 이체자의 관계에 대해서 “正字와 구별되는 異體字는 모두 俗字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속자는 簡化字일 수도 繁化字일 수도 있고, 後起字일 수도 古體字일 수도 있다. 正俗의 경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⁷⁾고 하였다. 결국, 正字인지 속자 혹은 이체자인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살펴볼 한자들의 분화와 변천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위 도표의 글자들이 나타난 옛 문헌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자전석요》의 속자가 어디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자전석요》에서 冀는 冀의 속자라고 하였는데, 《강희자전》에서는 《韻會》를 인용하여 冀를 “或作冀”라고 설명하고 있다. 冀는 《설문해자》에 “北方州也. 從北異聲.”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冀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 冀가 정자로 쓰였고 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冀는 北魏 韓顯宗墓誌에 , 北周 高妙儀墓誌 , 北魏 元均及妻墓誌 에 의 형태로 나타나다가 西晉司馬攸 望近帖에 이르면 의 형태가 나타나고 北宋의 《송본옥편》(543)에 冀의 자형이 나타난다. 또 《광운》(1008)에 冀의 다음 글자에 冀가 나오는데 “上同. 見經典省”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同字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진 남북조시기에 한자의 자형 분화가 冀와 冀로 이루어졌다가 冀가 《옥편》에 실리면서 《광운》등의 책에 정식으로 同字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龍龕手鑑》(997)에는 가 속자로 실려 있다.

冀가 우리나라의 자전에 실린 기록은 1796년 《전운옥편》에 冀를 표제자로 실고

6) 馬文熙·張歸璧 等編(1996), 《古漢語知識詳解辭典》(강혜근, <이체자란 무엇인가? -정자와 상대되는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11집, 2001에서 재인용)

7) 張涌泉(1995), 《漢語俗字研究》(강혜근, <이체자란 무엇인가? -정자와 상대되는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11집, 2001에서 재인용)

“冀俗字”라고 설명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1856년 鄭允容의 《자류주석》이나 《자전석요》, 《신자전》은 모두 冀를 冀의 속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전운옥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灑은 《설문해자》에 “含水噴也. 從水巽聲.”이라고 설명이 있지만 灑은 보이지 않는다. 《後漢書·欒巴傳》에 “所在有績, 徵拜尚書”라고 하였고 여기에 章懷太子가 《神仙傳》을 인용하여 주석하기를 “巴獨後到, 又飲酒西南灑之.”라고 하여 灑이 나오는 것이 가장 최초의 기록이다. 이후 《송본옥편》에도 표제자는 아니지만 灑의 설명에 “短狐, 狀如龜, 含水噴人.”이라는 설명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灑 역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龍龕手鑑》에 “灑灑二俗灑正”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灑과 灑이 당시 속자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字彙》에서는 灑에 대해 “同灑”이라 설명하여 이체자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전에 灑에 대해 최초로 기록된 것은 《華東正音》(1747)이다. 《화동정음》에 灑을 “俗灑”이라 설명하였다. 《전운옥편》에도 “灑俗字”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체자 중에서도 속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陀는 《正字通》(1640전후)에 최초의 기록이 보이는데 “陀”에 대해 “俗陀字. 陀或作隨.”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동정음》에 隨는 “同陀”라고 하였고 陀는 “俗”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최초의 자서기록이다. 이후의 《전운옥편》에 “陀俗字”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후의 자전들 역시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④ 窺은 《설문해자》에 “從窺從門”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窺이 정자임을 알 수 있다. 이후 《干祿字書》(774)에 窺과 窺을 기록하고 窺을 속자, 窺을 정자라고 설명하면서 窺의 자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의 《龍龕手鑑》 역시 《干祿字書》의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동정음》은 오히려 窺이 표제자로 나오고 窺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운옥편》은 窺가 窺의 同字로 설명하고 있다.

⑤ 曬는 《설문해자》에 “曬, 暴也. 從日麗聲.”이라고 설명하였고 《옥편》에 “亦作

鬻”라고 하여 “鬻”이 이체자였음을 알 수 있다. 《광운》, 《집운》, 《類篇》에서 모두 曬만 나타나고 《四聲篇海》와 《字彙》, 《正字通》에서는 照가 속자로 나와있다. 晒은 《字彙補》에 “與曬同”이라는 설명이 보인다. 《강희자전》 역시 《字彙補》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전에서는 《전운옥편》에 晒를 “曬俗字”, 曬는 “晒同”이라고 기록한 것이 처음이다.

⑥ 《자전석요》에 畝를 畝의 속자라고 하였지만 《강희자전》에는 고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설문해자》에는 畝자는 보이지 않고 대신 晦에 대해 “畝, 晦或從田 十 久”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畝는 晦의 이체자였음을 알 수 있다. 《간록자서》에 이르면 畝와 畝의 자형이 나오고 《五經文字》에 畝와 畝의 자형이 나타난다. 이후 《광운》에서 晦와 畝를 고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집운》은 晦, 畝, 畝를 或體로 설명하고 있다. 《강희자전》에서는 畝를 “古文畝字”라고 하여 《광운》의 설명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晦와 畝, 畝는 이체자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류주석》에서는 “畝古晦畝”으로 설명하였고, 《전운옥편》 역시 畝를 畝의 古字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석요》는 이 둘의 관계를 속자로 보았으며 《신자전》 역시 고자의 관계로 보고 있다.

⑦ 《자전석요》는 疔가 疔의 속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강희자전》은 疔의 속자는 疹이고 疔의 속자 역시 疹이며 “別作癩, 疔”라고 이체자로 설명하고 있다. 《설문해자》에 “疔, 熱病也. 從疔從火. 臣鉉等曰 ‘今俗別作疔, 非是.’”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疔은 徐鉉 등에게 정식 속자라도 인정받지 못하였던 듯하다. 《龍龕手鑑》에 이르면 “癩, 疹二俗疹疔二或作疔正.”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遼代에는 癩, 疹이 속자였고 疹, 疔이 或體였으며 오히려 疔이 정자였음을 알 수 있다. 疔는 《集韻》(1039)에 “疹과 疔가 疔의 或作”이라고 설명하면서 疔의 이체자로 기록되어 있고, 원대에 간행된 《옥편》에도 疔가 疔의 同字라고 설명이 나오면서 疔의 이체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던 듯하다. 《자휘》 疔조에 “徐鉉曰今俗別作癩非. 周伯溫曰別作疔非.”는 설명이 보인다.

다. 또한 《정자통》에도 “……同俗作疹, 別作癩疥非”라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자휘보》에서는 오히려 癩조에 “疑卽疥”라고 하여 癩와 疥를 동일한 글자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전 《전운옥편》에는 疥과 疹이 동자관계에 있는 것만 설명하였고 癩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자전석요》에 처음 疥가 疥의 속자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지식영이 모든 或作, 別作 등의 글자를 다 속자로 처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⑧ 《자전석요》에 磧을 齧의 俗字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은 《광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운》과 《집운》에서는 尙과 磧을 齧의 同字 또는 或作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운옥편》 齧조에 “俗作磧”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전석요》는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⑨ 邇는 《설문해자》에서 “近也. 從辵爾聲. 𨔵, 古文邇.”이라고 설명하였는데, 𨔵이 古字임을 알 수 있다. 이후로 《龍龕手鑑》에서는 𨔵를 邇의 혹체로, 원대에 간행된 《옥편》과 《광운》에서는 邇의 同字로 보았다. 邇의 자형이 나타난 것은 《집운》이 최초인데, “古作邇, 或作邇”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𨔵의 자형에서 다시 邇가 분리되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자형상의 유사성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후로 《類篇》, 《四聲篇海》, 《자휘》 등에서 邇가 邇의 同字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자서에는 《전운옥편》에 邇를 邇의 속자로 설명하였고, 《자류주석》에도 邇를 邇의 속자로 설명하고 있다.

⑩ 𩇛는 《설문해자》에 “骨耑𩇛隹也. 從骨丸聲”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정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용감수감》 ‘고려본’에서는 “𩇛_俗𩇛_正”으로 𩇛가 오히려 정자로 기록되었다. 또 다른 판본의 《용감수감》은 “𩇛_俗𩇛_正”으로 오히려 𩇛가 속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옥편》과 《광운》은 모두 𩇛를 정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집운》은 𩇛를 따로 두어 𩇛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글자로 두고 있다. 《사성편해》에 이르면 𩇛을 𩇛, 𩇛와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𩇛자형이 다시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자휘》에서 飏의 속자가 飏라 하였고, 또다시 飏의 자형이 별개의 글자로 설명되어 있다. 《정자통》에서는 飏의 속자가 飏이라고 하였고, 飏과 飏는 飏의 譌字라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운옥편》에 飏를 飏의 속자라 하였고, 《자류주석》과 《자전석요》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

⑪ 《강희자전》에 柁에 대한 설명을 보면 “與舵同。一作柁。”라고 하였고, 柁에 대해서는 “同柁”라고 한 것으로 보아 舵, 柁, 柁는 모두 이체관계에 있는 글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柁는 《설문해자》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후기자에 속할 것이다. 柁의 기록은 《용감수감》에 보이는데 정자로 사용되었다. 이후 《집운》에 이르면 “柁, 正船木。或作柁, 舵。”라는 설명이 있어 이때에 柁뿐 아니라 柁와 舵가 사용되었고, 柁가 오히려 정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서 기록을 살펴보면 《화동정음》에서 柁의 속자가 柁라고 설명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전운옥편》과 《자전석요》는 오히려 柁를 柁의 속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집운》의 영향 때문인 듯하다.

⑫ 泐은 《설문해자》에 “水石之理也。從水從防。”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물과 돌의 결이라는 뜻이다. 泐은 《용감수감》에 처음 보이는데 “泐泐二或作泐泐正”이라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泐과 泐이 모두 泐의 이체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龍龕手鑑》을 제외하면 泐에 대해 언급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희자전》에도 언급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전운옥편》에도 泐을 泐의 속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한자가 《용감수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것이다.

⑬ 《干祿字書》에 “騾羸並上通下正”이라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羸이 정자로 쓰였고 騾가 이체자였음을 알 수 있다. 《광운》에는 “騾”를 설명하고 아래 부분에 “羸”을 놓고 “騾”와 같은 글자라고 하였다. 《집운》은 “羸”에 대해 “亦作騾”라고 설명하여 역시 이체자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2) 《강희자전》에 속자의 언급이 없거나 다른 해석을 한 경우

NO	표제자	《자전석요》	《강희자전》해석의 부분 발췌
1	樑	梁俗字	속자언급 없음
2	煨	鍛俗字	속자언급 없음
3	齏	齏俗字	《集韻》俗作齏, 非是。

① 《강희자전》에는 樑이나 梁의 설명에서 속자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樑은 《자휘》에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정자통》에 이르면 “樑, 俗梁字”라는 설명이 나온다. 현대의 《中文大辭典》에도 樑을 梁의 속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강희자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전석요》의 樑을 “梁俗字”라고 설명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② 煨는 《자휘》에 처음 언급되어 있는데 “鍛同”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자통》에도 煨를 “同鍛”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운옥편》에 煨를 “鍛俗字”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전석요》도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齏를 《자전석요》에서는 “齏俗字”라고 하였지만 《강희자전》은 《集韻》을 인용하여 “俗作齏, 非是”라고 설명하고 있다. 《설문해자》에 齏를 “墜也. 從韭, 次宀皆聲.

 齏或從齊.”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는 齏가 정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齏는 《광운》에 처음 보이는데 “齏”를 齏의 同字라고 하였고, 齏는 “齏菜”를 말하는 것으로 속자라고 하였다. 《집운》에서는 “或作齏齏齏, 通作齊, 俗作齏非是.”라고 하였다. 《六書正譌》에서도 “別作齏 通俗作齏非.”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휘》와 《정자통》에 齏는 “同齏”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운옥편》에도 齏는 “齏同”이라고 하였고 《자전석요》는 《전운옥편》을 따라 “齏俗字”라고 하였다. 이는 《자휘》와 《정자통》의 영향인 듯하다.

3) 《강희자전》에 없는 글자이거나 속자의 자형이 다른 경우

NO	표제자	《자전석요》	《강희자전》해석의 일부 발췌
1	𠂔	所俗字	-
2	憊	憊俗字	-
3	准	準俗字	《廣韻》《集韻》𠂔俗準字。
4	巔	巔俗字	《正字通》俗巔字。
5	崗	岡俗字	《正字通》俗岡字。
6	𠂔	哉俗字	-
7	叙	敘俗字	《正字通》俗敘字。○按敘本从支从余。今作叙 从又 誤。
8	晉	晉俗字	-
9	溱	泝俗字	《正字通》俗溱字。

① 𠂔는 《간록자서》에 所의 이체자로 나온다. 《사성편해》에도 𠂔이 所의 “俗用也”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강희자전》에는 이 자형이 나오지 않는다.

② 憊의 자형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간록자서》이다. “憊憊_{上俗下正}”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憊이 속자이고 憊이 정자라는 뜻이다. 《五經文字》(776)에는 “憊”에 대해 “作憊訛”라고 설명하였다. 《용감수감》에는 “憊憊_{三俗} 憊_古 憊_正”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憊이 속자임을 말해주고 있다. 《광운》에도 憊이 憊의 속자라고 설명하였다.

《전운옥편》에서 憊은 憊의 同字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석요》에서 憊이 憊의 속자라고 한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다.

③ 準의 자형은 《용감수감》에 최초로 보이는데, “準, 古文. 音准. 均也, 平也, 度也.”라고 하였고 準은 “古文准字, 均平准度也.”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准과 準이 고문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準의 《黃庭內景經》에 準_準의 자형이 보인다. 이후의 《사성편해》에도 準을 准의 고문이라고 하여 《용감수감》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전운옥편》에는 準을 표제자로 두지는 않았지만 准의 설명에 “準俗字”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準과 准이 크게 구별 없이 속자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④ 顛와 顛은 이체자 관계이다. 《광운》에 顛와 顛을 同字관계라고 하였고, 《집운》에는 顛에 대해 “俗作顛非是”라고 하였다. 또 《육서정와》에서는 顛에 대해 “別作顛顛竝非”라고 설명하였다. 《자휘》에서는 顛을 “俗顛字”라고 하였다. 그러나 顛은 별개의 글자이다. 《전운옥편》에 顛을 “顛同眞通”이라고 풀이하였고, 《자류주석》에 顛을 “顛俗”이라고 풀이하고 있지만 顛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자전석요》의 顛이 顛의 속자라고 한 풀이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⑤ 崗, 岡, 岡은 모두 이체자 관계에 있는 글자들이다. 《자휘》에는 이 글자들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데 “崗은 岡의 同字”라고 하였고, “岡은 岡의 古字.”라고 하였다. 《강희자전》은 岡을 속자라 하였으며, 《자전석요》는 이체관계에 있는 崗과 岡을 속자관계로 보았다.

⑥ 《자전석요》에 戔의 속자가 戔이라고 하였는데, 《정자통》에 의하면 “戔, 本作戔, 篆作戔, 隸省作戔, 俗作戔非.”라고 하였다. 戔은 戔의 이체자이므로 戔을 戔의 속자로 보아서 안 될 터인데 《자전석요》는 속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⑦ 《강희자전》에 “敍”에 대해 “《오경문자》에는 叙라고 하여 又부수에 넣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正字通》은 주백기의 설 때문에 攴와 余를 구성요소로 한 글자를 쓰고 있다. 지금 《說文》을 따라 고친다. (《五經文字》作叙, 入又部, 非. 《正字通》因周伯琦說, 從攴從余. 今遵《說文》改正.)”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叙는 잘못된 것이고 敍으로 고쳐야 함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데, 《자전석요》는 叙를 표제자로 두고 敍의 俗字라고 풀이하고 있다. 《간록자서》는 “叙敍_{上通下正}”이라고 하여 敍가 정자이고 叙가 通字인 이체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五經文字》는 “作叙訛”라고 하여 叙로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희자전》의 《오경문자》에 대한 인용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叙는 그 뒤로 오랫동안 자서에 등장하지 않다가 《자휘》에 “叙, 敍本从攴, 俗字从又.”라는 설명이 보인다. 《정자통》 역시 叙를 敍의 속자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서에 기록된 것으로는 《전운옥편》에서 “序를 叙와 통한다”고 하였

고, 《자류주석》에서는 叙를 敍의 或體로 설명하고 있다.

⑧ 《설문해자》에 짚은 “從日從辵”이라 하였고 소전체는 𨔵이다. 《간록자서》에 “𨔵 𨔵_{上俗下正}”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𨔵이 속자이고 𨔵이 정자임을 알 수 있다. 《옥편》(元刊本)에는 𨔵이 𨔵의 同字라고 설명하였다.

⑨ 《자전석요》에는 溍을 “泝俗字”라고 하였는데 《강희자전》에서는 《정자통》을 인용하여 “俗泝字”라고 설명하고 있다. 《集韻》에 “泝或作漚, 溯.”라고 하였고, 《龍龕手鑑》에 “泝字省筆而爲泝.”라고 하였으니 泝와 泝가 이체자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자전석요》에 나오는 “某俗字”의 형식은 《강희자전》에서 “속자”라고 해석한 설명을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희자전》에는 “或作”, “別作”, “同字”, “古字”, “譌字”등에 대해서도 지식영은 속자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체자와 속자의 구별 없이 대부분의 이체자를 속자로 여겼기 때문인 듯하다.

이 외에도 《자전석요》에 나타난 속자가 나타나는 문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속자 자형들은 대부분이 당송시기의 《干祿字書》(774), 《龍龕手鑑》(997)에 나타나고 있는 자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계속 문화적 교류를 지속하여왔는데 유독 당대의 자형을 한국에서 고수하고 있었던 경향은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도표는 《강희자전》의 속자와 다른 25글자가 나타난 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No	표제자	《자전석요》	출처자료	간행연대
1	龔	龔俗字	《宋本玉篇》	543
			《龍龕手鑑》	997
2	漚	漚俗字	《宋本玉篇》	543
			《龍龕手鑑》	997
3	坨	陀俗字	《正字通》	1640전후

4	冤	冤俗字	《干祿字書》	774
			《龍龕手鑑》	997
5	晒	曬俗字	《字彙補》	清代
6	畝	畝俗字	《干祿字書》	774
			《五經文字》	776
7	疔	疔俗字	《集韻》	1039
			《字彙》	明代
8	漬	糝俗字	《廣韻》	1008
			《集韻》	1039
9	迹	邈俗字	《集韻》	1039
10	骹	骹俗字	《龍龕手鑑》	997
11	桅	桅俗字	《龍龕手鑑》	997
12	泐	泐俗字	《龍龕手鑑》	997
13	騾	羸俗字	《干祿字書》	774
14	叙	敘俗字	《干祿字書》	774
15	樑	梁俗字	《正字通》	1640전후
16	煨	鍛俗字	《字彙》	明代
17	齏	齏俗字	《廣韻》	1008
18	𠂔	所俗字	《干祿字書》	774
19	憊	憊俗字	《干祿字書》	774
20	准	準俗字	《干祿字書》	774
21	顛	顛俗字	《廣韻》	1008
22	崗	岡俗字	《字彙》	明代
23	𠂔	哉俗字	《正字通》	1640전후
24	晉	晉俗字	《干祿字書》	774
25	溱	泝俗字	《龍龕手鑑》	997

위 도표를 살펴보면 《강희자전》과 자형이 다른 속자들은 대부분 당송시기의 《干祿字書》와 《龍龕手鑑》에서 나타난 글자들로 중국의 문헌에서는 오히려 사라져 보이지 않는 자형들이 한국의 문헌에서는 조선시대말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거나 심지어 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강희자전》을 저본으로 삼아 자전을 만든 《자전석요》에서조차 《강희자전》의 속자보다 다른 자형을 속자로 설명한 부분은 선 듯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를 한국학자의 보수성이라고만 보아도 좋을 것인가? 그렇다면 왜 굳이 당송시기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 어떤 결론도 얻지 못하였고 이는 앞으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한자의 전파와 변화과정은 한자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많은 역사의 비밀을 알려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參考文獻】

- 池錫永, 《字典釋要》, 1917, 滙東書館
 崔世珍, 《訓蒙字會》, 1527
 미상, 《全韻玉篇》, 1796
 鄭允容, 《字類註釋》, 1913
 조선광문회, 《新字典》, 1915
 漢語大辭典編纂處, 《康熙字典》, 上海辭書出版社, 2010(7쇄)
 하강진, 〈자전석요의 편찬과정과 판본별 체제 변화〉, 《한국문학논총》 제 56집, 2010.
 하여삼, 〈한국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중국어문학》 제33집, 1996.
 하여삼, 〈조선 후기 민간 속자 연구〉, 《중국어문학》 제27호, 1996.
 강혜근, 〈이체자란 무엇인가? -정자와 상대되는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
 논총》 제11집, 2001.
 왕평·이경원, 〈《한국속자보》 속자연구〉, 《인문학논총》 제15권 2호, 2010.
 한용수·강영규, 〈한·중한자의 자형분석〉, 《동서비교문학저널》 제24호, 2011.

【中文提要】

《字典釋要》是一部由韓國醫學家兼國語學家的池錫永先生所(1855~1953)編撰的字典。本文以現由國立中央圖書館所收藏, 1917年滙東書館第十二次刊版發行版本作為研究對象。雖然在“字典釋要目録”的末端明確說明總收錄16298字, 但筆者在數據整理工作中却發現, 實收錄字為16307字, 多出目録9字。

池錫永在“范例”中指明, 以‘某俗字’形式解釋(釋義)《康熙字典》中出現的俗字。但依據筆者調查發現, 部分‘某俗字’形式的俗字與《康熙字典》的解釋有所出入。《字典釋要》的‘某俗字’形式的俗字總共159個。這159個字當中與《康熙字典》的解釋不同的字總共25個。

筆者對這25字, 從《說文解字》開始查起, 並對出現這些漢字的文獻做了具體的調查研究。結論是, 韓國俗字大部分都保留着唐宋時期《干祿字書》、《龍龕手鑑》中出現的漢字形態。從中我們可以窺見漢字在韓國傳播與使用的線索。

【主題語】

俗字, 異體字, 《字典釋要》, 《康熙字典》, 《干祿字書》, 《廣韻》, 《集韻》, 《龍龕手鑑》

투고일: 2013. 10. 15 / 심사일: 2013.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3. 11. 10